

서 울

신문방송학과, 임시총회열려
수업거부 결의

지난 13일(월) 사회학과 301호 강의실에서 열린 신문방송학과 비상임총회에서 김진경 교수 수업거부안이 참석자 5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업거부 문제 경과보고와 현재 상황과 비대위의 대응책을 논의한 후 수업거부안을 표결 처리했다.

사학대회 개최
총기조, 총노선 결정

사범대학총대표회의(사학대회)가 지난 17일(금) 2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과학관 303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제개편안 외곽 △교육평생상황보고 △사범대학총대표회의 △총기조, 총노선 논의 △각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정경인양, 불어과 학생회장 선출

정경인(사양·불어 2학과)이 지난 16.7일(금) 11월 15.6일(목) 열린 선거에서 재직인원 42명중 23명 투표해 19명의 찬성을 얻어 각각 불어과 정·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경제학과 선거, 김정경 군 당선

김정경(상경·경제 3)이 지난 16.7일(금) 11월 15.6일(목) 열린 선거에서 재직인원 42명중 23명 투표해 19명의 찬성을 얻어 각각 경제학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기간 동안 김군은 △공통체육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보환(3)군은 "수업거부 부장 진행 후 수강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한 뒤 "경기총회에서 재논의할 것이다. 총학생회가 건설되면 함께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방송학과는 오는 23일(목)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임광승(2)군은 "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정부 평가 △4.15총선 정세 △교육부령 △교육발전종합계획안 등에 대한 제기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 사범대학총대표회 박찬규(한국교육 4)군은 "오랜 시간 회의가 계속돼 대표자들이 지쳐있지만 총선 등을 비롯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선자 정경인양은 "재학 내 세 기반으로 역동하는 불어과의 트 네이션을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다룬 학생들은 다시 재학생을 상대로 강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3일(목) 행정학과 정기총회 개최

행정학과 학생회는 오는 23일(목) 대학원 11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편된 총기조와 전 공립수과목과 영어강의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 또한, 신구대면식도 이날 함께 열리는 데, 70여명 동문회에서 참가해 강담회도 연다.

이와 관련 행정학과 학생회장 김동원(3)군은 "개편된 학과가 개편된 이후 연계성이 적은 공부를 해야하고, 학생들이 과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부족해 지는 것 같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학부제 전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내 미용실
가격인하

구내미용실 컷트 가격을 4,5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다. 또한 컬러 염색도 15,000원부터이다. 이와 관련 사범 박문규씨는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공간이 생기는 대로 이발소와 미용실을 분리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생처 아르바이트
지원자 모집

학생처에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수시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경험과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우선권이 주어진다. 문의전화 4035

24일(금) 이란과
정기총회 개최

이란학과 학회회는 오는 24일(금) 5시 대학원 210호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집행부 안건 △소모임 한 해 사업보고 △예산결산 심의의 보고안건과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논의와 안건이 상정됐다. 복지기금은 과 재학생의 성격장점 일부로 마련되는 것으로 활용방도는 추후에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임광승(2)군은 "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범대
교생실습단임회 개최

사범대학학생회는 오는 14일(화) 5시 30분에 시청자교육원 114호 강의실에서 교생실습단임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4학년 재학생들이 효과적인 실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신배나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다. 또한, 교생실습을 다룬 학생들은 다시 재학생을 상대로 강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 1차
단체교섭 진행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16일(목) 학교측과 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노조측 대표로 장진 대교노조위원장 이, 사용자측 대표로 변형은 이사장이 참석해 기존에 교섭을 진행했다. 이는 대교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교섭권과 체결권이 대교노조에 귀속된 바에 따라 우리학교 노동조합이 대교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재무처장, 서울·용인 배움터 총무장, 홍보실장, 건설본부장, 전자계산소장, 출판부장, 시청각교육원장, 모현학사장을 사무직원으로 임하는 안, 직원의 행정전문화와 업무개발을 위한 연구년의 실시,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무일을 만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을 줄이는 안 등이다. 또한, 노조측은 2000년도 임금협약으로 생계비 확보, IMF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폭박 및 2000년 총학생회를, 참가수승을 고려하여 총학생회 15.2%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김희성양, 폴란드어
과 과회장 당선

김희성(통역·폴란드어 4)이 지난 16.7일(금) 진행된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인원 100명 중 86명의 학생이 찬성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과회장 양경수(통역·폴란드어 4)군이 통역학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어 다시 치뤄지게 됐다. 김양은 △스펙트럼과 부평한 학생회 만들기 △학회연결, 세민전을 위한 학술문화위원회 △리더십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자 김양은 "갑자기 과회장이 되어 혼란스러웠지만 있지만 새내기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철학과
개강총회 열려

철학과 학생회는 지난 16일(목) 인문대 212호 강의실에서 70여명의 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보고, 자치회비 납부촉구, 세민전 소개, 총학생회의 등록부 부경 발언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경준(4)군은 "학부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선후배 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 인

통역학대 선거
양경수(폴란드어 4)군 단독 출마

양경수(통역·폴란드어 4)군이 오는 21.2.2(수) 열린 진행되는 통역학대 학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양군은 △통역학대 발전인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민중생존권 강화 △학생회 운영공개와 실질적 참여 확대 △단체별 자족 '통역학대 주간' 개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표소는 교양관과 이문관 두 곳에서 설치된다. 이와 관련 후보자 양경수(4)군은 "이번 선거가 화합하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도어과 단합체육대회 열려

인도어과 단합 체육대회가 오는 21일(화) 4시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축구, 핸드볼, 발아구 등 과 학생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윤호준(2)군은 "한배기와 새내기 화합하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레이먼 대학교 교류학대 논의

마우리츠 판 라이언 네덜란드 레이먼 대학교 및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부총장이 지난 14일(화)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아시아 순방 중 우리학교를 방문한 마우리츠 부총장은 영어강의개설, 학회 공동 프로그램, 인터넷 원격강의 등을 통해 양 교의 학생, 학술 교류를 제안했다. 또한, 네덜란드 교과과정과

교재를 우리학교에 지원할 것에 대해 약속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교과 장학금 교수는 "유럽의 명문대학인 레이먼 대학교와 교류학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강좌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오는 22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학원 강의실 311호에서

「지식정보문화학」, 001기 1면 1세상, 주제로 기획강좌를 개최한다. 기획강좌의 주제와 강사는 아래와 같다.

주제	날짜	강사
1. 정보문화의 역사발전 단계	3.22	이명구(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2. 정보문화의 권력	3.28	박동진(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3. 정보문화, 본질의 사회화, 스타일의 변화인가?	4.1	박동진(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4. 「지식정보문화」: 새로운 지식, 지식인의 사회	4.2	박동진(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5. 「지식정보문화」에서의 주체의 정체성 형성	5.2	이동훈(인제대 신학과 교수)
6. 「지식정보문화」에서의 권력	5.9	김유정(수원대 신학과 교수)
7. 정보문화의 새로운 기호와 세대	5.17	조은(국대 사회학과 교수)
8. 뉴미디어의 등장과 대중 문화	5.24	서동진(문화평론가/성경대 강사)
9. 대안을 모색하며	5.30	정철호

문의전화 : 951-4466

용 인 배움터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종식1	종식2	석식	조·종식	석식	탕류
월 (2월)	총내부유망 (W1,400)	외내부유망 (W1,400)	전국유망 (W1,400)	강지룡유망 (W1,400)	황두부유망 (W1,400)	시라공탕 (W1,800)
화 (2월)	바섯유망 (W1,400)	삼정삼공유망 (W1,800)	공미지차계 (W1,400)	회고기여국 (W1,400)	연두부유망 (W1,400)	홍산내탕 (W1,800)
수 (2월)	강지룡유망 (W1,400)	원정정 (W1,800)	삼국기여비만 (W1,400)	두부기여국 (W1,400)	오강기여국 (W1,400)	행방탕 (W1,800)
목 (2월)	장제비만 (W1,400)	원정비만 (W1,800)	삼국경계 (W1,400)	유기차정국 (W1,400)	유두차기비만 (W1,400)	강지룡내탕 (W1,800)
금 (2월)	총내부유망 (W1,400)	시라공탕 (W1,800)	배룡유망 (W1,400)	배룡유망 (W1,400)	강지룡내탕 (W1,800)	원정탕 (W1,800)

이 사람 "문학과 문화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새세기 문학 모색할 터"

문학계간지 「미네르바」를 창간한 편집장 신수철(시작물론 강사)씨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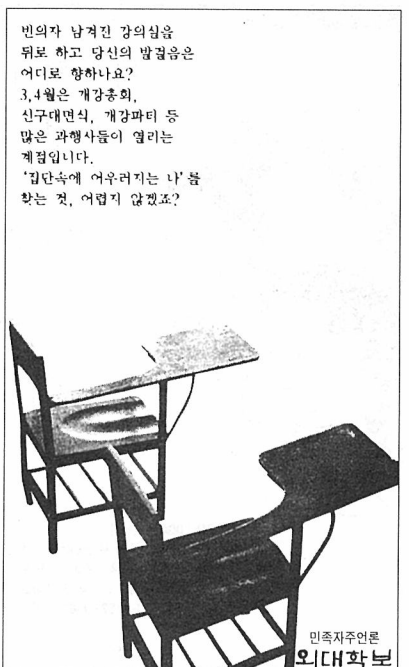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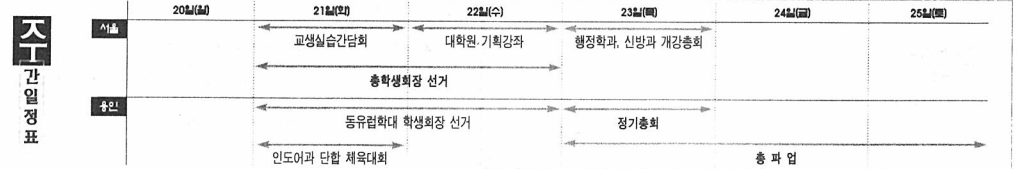
"파블로, 권력화, 동인화 되어가는 한국문단에서 지켜보고, 보다 세계문학과의 교류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창간호는 내 계간지인 '미네르바'의 편집장인 신수철(시작물론 강사)씨는 전한다. 이 계간지는 한국어교육의 강령과 교수, 교원, 학생 등 외국어수들을 중심으로 대학원 국문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 또한 소설가 송영, 김진경, 문학평론가 이상민씨 등이 참여했다. 미네르바는 새천년을 기념하면서 창간호 문예종합지인 것이다. '새로운 연대기를 시를 박한 이벤트'는 일회성의 불꽃놀이로 화를 내고, 다시 발단을 짓는 일은 일상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 지나간 연대의 문학과 문화를 진지하게 들여

다 보고 새로운 세기의 문학을 모색하기 위해 문학잡지를 창간했다."며 신씨는 그 의미를 덧붙였다. "미네르바는 외대에 있는 동인이 아니라 지혜, 사람의 여신인 미네르바를 뜻하는 것이다. 문학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파고들어 인간의 감성을 보듬어 주고자 한다"고 신수철은 미네르바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미네르바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대 특성을 살린 계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획연재 중 '세계문학 리포트'는 세계문학을 소개하고, 비고 그리고 한국문학과의 관계성까지 고찰한다"고 그 특성을 전한다. 세계문학과의 교섭,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신수철은 일반적인 편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세계문학의 장으로 작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4개 언어를 하는 외대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학을 공부한 인력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한국 문학학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특집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라는 주제로 21세기 문학을 전망하는 기획물들로 짜여져 있다. "또한 지구촌 시대에 살아남는 문학의 역할을 생동감있게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해외문학을 소개했다. 특히, 외국어 작품의 한글 번역과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을 함께 실었다"고 말한다. 신수철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학, 인문학, 사회철학을 학생들이 더 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문학동아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 한다. 여기서 가장 열려 있는 점은 자기주체성을 가질려는 지성인, 교양인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며 대학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능력이 되며라는 그래서 자기존재의 의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점이 선배로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수철은 "인문학의 죽음"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학자배에 도전할 수 있는 의미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차츰 더 나아지는 계간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윤용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서울배움터34대 총학생회 정경도문화

재선거 통해 학생회 혁신의 계기로

외대 발전방향, 사회문제 등 후보마다 견해차이 커



<기호 1번 정·김이원(동양·베트남어 4) 부·김경순(서양·서반어 4)>



<기호 2번 정·김경순(사학·신방 4) 부·김경순(동양·인도어 4)>



<기호 3번 정·변부현(상경·경제 4) 부·김보민(서양·서반어 4)>

지난 17일(금) 도서관 앞 노천극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경도문화가 개최됐다. 선거제개혁 연합회의(연합) 주최로 열리는 후보자 정경도문화는 연합회의 재선거 문제제기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세 선본에서 학생회, 사회문제, 복지사안, 기타 4분야 별 공동질문에 각 선본에서 답하고 방청객들이 추가질문에 의식으로 응했다.

△기조연설

기호 3번 '변명은 필요없다!' 책임만 지겠다'의 변명(상경·경제 4) 김보민(서양·서반어 4)은 "운동권 학생회는 더 이상 지속될 만 없다. 8개월 동안 지칠 수 있는 공약들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학우들 속으로의 이진우(동양·베트남어 4) 김문성(사학·서반어 4)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회가 되겠다. 학생들을 직접 찾아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호 2번 '세 세기 그 첫 번째 만남' 서양·인도어 4)은 "30년 자족동 투쟁, 98 재단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는 정경도와 대발전의 방향으로 국립화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33대 총학생회 평가

기호 1번 후보는 "한 것이 없어 평가할 것도 없고"고 짧게 대답했다. 기호 2번 후보는 "민주적 논의 기구인 대학협의의 정칙과 LG건설을 통한 학교발전 방안 등을 평가되어야 하지만 대중 투쟁을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기호 3번 후보는 "그들의 생각으로 학생들을 이끌었다. 관심과 된 정치투쟁은 반영 없었다"고 밝혔다.

△학내사안

작년 선거 투표율에 대한 평가와 학생회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작년 선거의 투표율과 학생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킨 학생회 전체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호 2번 후보는 기존의 회칙을 안에서 학생회의 회칙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호 1번 후보는 상행하향의 학생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학대의

와 학내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2번 두 후보가 회의체계의 문제를 담담한 것과 달리 기호 3번 후보는 학생회 일꾼들의 양심적이고 깨끗한 마음가짐이 우선시 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교수 복귀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복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2번 후보는 공존의 길을 무시하는 비리교수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기호 3번 후보는 학생들의 뜻과 의견의 일치만 먼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기호 2번 후보는 총학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내외교과와 강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정경사안인 등록금 인상과 재단투쟁과 교육장비에 관한 질문은 3번 후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호 1번 후보는 "등록금 인상과 재단투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는 "등록금 인상은 재단투쟁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3번 후보는 "등록금 인상은 재단투쟁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는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학재단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립화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호 2번의 답변에 한 방청객이 국립대 민영화는 상행하향 국립화가 가능하고 묻자 기호 2번 후보는 "기존의 국립대들과는 다른 것인데, 그 상을 왜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학내복지사안

학내복지에 관한 질문에 기호 1번 후보는 "교육환경, 복지에 관한 사안은 전학대의 정책과 맞닿은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는 "정확치로 짐작해 나와 있는 복지사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호 3번 후보는 "사립에 건물 전산설치와 스캐너 설치, 사물함 화물 등 복지사안을 꼭 실현시켜야겠다"고 밝혔다.

△사회문제

4·13총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 후보 모두 총선전대의 낙선, 낙선 운동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기호 2번 후보는 "총선전대 지역구 출마자들과 공천을 미룬", 기호 3번 후보는 "지역구당선을 얻지 못한"을 있는 방안"으로, 기호 1번 후보는 "민주노동당

의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혀 총선을 대하는 세 후보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호 1번과 기호 2번 후보가 각각 "주권의 문제, 냉전질서 교착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역학관계에서 비리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기호 3번 후보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지만, 철수 후 주변의 경제교류의 관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기호 1번 후보는 "통일의 질질참이 학생들 사이에서 부족하다. 평양과 대외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당위성을 알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는 "빨빨 정책, 금강산 관광, 민간교류 등 한대 진흥에는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후보는 "자본에 의한 흡수침몰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중연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3번 후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대외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후보는 "동북공 연구도 민중의 생계비와 관련해서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장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후보는 "기초의 연대활동 중의 혁신과 새로운 연대의 활동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여학생대표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여학생 취업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기호 3번 후보는 졸업후 여학생들의 사회생활을 보장, 기호 2번 후보는 '여학생 위원회'의 공조를, 기호 1번 후보는 '여학생 취업 특별기구 신설'을 제정했다.

박승우 기자 soma-j@hanmail.net

사설

당연한 권리 찾기

작년선거 평가, 무관심 극복 선행되어야

현재 세내기의 활발함으로 학교가 들쭉이 있어 될 시기에 서울 배움터에는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4·13 총선바람이 아니라 재단투쟁 선거로 무산되었던 34대 총학생회 선거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34대 총학생회 선거가 기호 1번 측의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대외부를 통해 선거 일정에 자력이 끝나도록 투표를 이 50%를 넘기지 못하자 기호 1, 2번 후보측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하에 하루 연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도 50%를 넘기지 못하자 기호 1번 측 당시 총학생회였던 선거운동위원이 투표를 높이기 위해 이미 투표한 과 친구를 다시 한번 투표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기호 2번 측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인 사퇴하는 외대사건 큰 오점을 남겼다.

한번, 부정선거 이전에 학생들과 합의없이 양 후보측과 선거원 측이 세 측에서 없는 연장투표를 실시한 것부터가 선거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3대 임기가 끝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4대 총학생회는 빈자리에 남아있다. 이로 인해 전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한 곳으로 모아 학교에게 쫓긴 권리를 찾아내는데 극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적인 예산제에 있어 서울지역 사립대학이 올린 만큼 올렸다는 98년등록금 인상, 소년 소년들이 경제학사에 버섯이 올라간 징계 교수들, 재단장관들이 미련없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본관 신축, 풀리지 않고 있어오는 전인한 주한미군 철수, 빨빨정책과 외세의 침략으로 거북마한 통일...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권리는 하나를 놓이지는 데 우리의 힘을 모으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자들의 선거회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진땀을 흘리고 있다.

단행(단과대학총학생회)측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인 학우투쟁을 작년 이어 투쟁했고 각 단대의 학생들에 의해 이미 대외투쟁과 함께하여 중앙선거위원회의 지지를 갖고 이번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임을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3명이 아닌 34대 총학생회 재선거를 예정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외투쟁본부 측은 현재 총학생회가 없는 상태에서 단행은 총학생회의 회의체적인 중립위치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재선거는 논의는 임시학생총회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해져야 한다고 800여명 학우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와 지난해 부정선거의 명백한 평가가 대학을 미련없이 한다는 의지로 지난 19일(목)에 열린 임시학생총회는 50여명의 참석인원으로 성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투표를 50%를 넘기지 못해 일어난 부정선거로 재선거를 하는 시점에서 투쟁본부와 단행협의 선거에 대한 합의점은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34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다면 또다시 총학생회는 건설되지 않는다. 현재 대외에서 찾아야 할 학우 요구 인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학교측과 상대하가 많은 한계점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대외연대의 당연한 권리찾기는 미룰 수으로 빠져 버릴 것이다.

비록 내일 21일(화)부터 22(목) 양일간 34대 총학생회 선거일이다. 3명이 후보로 나온 상황에서 그들 후보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우리 학우들을 위해를 책임지고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뽑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은 곧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작년 선거에 대한 평가와 34대 선거 과정에 있었던 오류점은 반드시 34대 총학생회를 세운 뒤 명확히 평가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

용인배움터 1500·2번 버스 문제

교통문제 해결위한 상설기구 절실

용인배움터의 교통문제는 학교가 설립된 이래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일부터 사당에서 학교로 오가는 학교버스가 없어지고 사당에서 분당방역 에버랜드를 오가는 1500·2번 버스가 신설됐다. 개강 후 학교측의 통보 없이 갑자기 이뤄진 이 사안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측의 부담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상설노선을 위한 일차의 요청으로 인해 학교를 찾았다고 학교 측은 학교 버스의 폐기 이유를 밝혔다.

학교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는 지점의 버스외부 운영업체에 버스를 대하여 학교버스를 운영해는 제게보다는 규격적으로 운행되는 경기고속의 학생들에게도 편하고 학교측에서도 이익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500·2번 버스는 6배에 다치지 않아 차를 타려는 학생에 비해 버스가 한자리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보통 25분에서 30분씩 배차간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을 늦게 기다려 수업시간에 지각할 뻔 해와 많은 사람이 많아서 서서 있어야 했다'고 통학시간의 고통을 얘기하

는 이호영(자연·환경과 2)은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간지점에서 승차해야 하는 분당지역 학생들은 몇몇의 학생들만 승차하여 하거나 승차거부로 인해 한명도 승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사당노선에 버스운영업체의 이윤요구를 위해 없던 학교버스를 분당지역에 투입하고 수지와 용인을 오가는 곳에 학교차를 다니게 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점대 버스의 계약기간이 끝나 사당노선의 버스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분당에 투입할 학교 차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충주주 주민이 이철원씨는 "학교 버스는 예산 한계점이 많고 경기고속의 증차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하며 전철교통부와 서울지역 교통정책과, 경기도청 교통담당과에 계속적인 증차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하는 과정에서 세 곳에 합의를 다 받아야 하는 데 교통환경문제와 환경문제로 인해 매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학

생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또한 1, 2교시에 끝나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들하기 강의 시간표 조정을 교학과와 예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교통담당 집행부 류경수(경상·경제 4)군은 "학교측은 대외고속 버스운영회사와 장부에 계속적인 증차 공문서를 보내고 있으나 학교가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없는 학교당국을 비판했다.

이와 같이 대학당국과 학생측은 의 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00·2번 버스 신설과정에서 대학당국과 경기고속의 일방적인 합의 있었을 뿐 교통을 타고 다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될 교통정책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측의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학생이 알 수 있고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상설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부 oodapress@hanmail.net

외국어연수생모집

(인간 10주과정 모집)

- 모집과정 및 학과
· 일반전, 대학생 회화과정·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미얀마, 베트남어, 독일어, 이탈리아, 포어, 서반어 등 24개 외국어
· 시험대상: 영어 TOEIC, TOEFL, 일본어 JPT, 중국어 HSK(수령고시)
· 한국어정규과정, 한국어(주권과정)
- 교육기간 및 시간

과정	수업시간	교육기간	수업요일
시험대상전	17:30 ~ 19:20	2000. 4. 17(월) ~ 6. 23(금)	주 4일 (월, 화, 목, 금)
대학생과정	19:30 ~ 21:20	2000. 4. 24(월) ~ 6. 30(금)	주 5일 (월, 화, 목, 금, 토)
- 원서접수 및 등록절차
· 원서접수 및 등록: 2000. 4. 7(금)까지 선착순(전화, FAX, 인터넷으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 수험원(본인 소영사), 사진 2매(반명판형), 등록금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일부 대학생도 지원 가능)
- 반영성시험(Land Test)
· 일시 및 장소: 2000. 4. 8(토) (대학생 14:00, 일반전 15: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7기
· 단, 회화과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한하여 실시함(1:1 인터뷰)
· 기타의외에는 초·중·고교 중 본인 인터뷰를 통하여 인정함.
· 반영과정 1 Class 구성은 12 ~ 15명
· 발표: 2000. 4. 29(수) 원 회 개비내 공고 (전화문의 가능)
- 기타
· 교육기간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인양실습) 등 교내시설 이용가능
· 인터넷 - <http://www.hufs.ac.kr> (외국어연수원7기)
· 문의처 - [02-451-7415](tel:02-451-7415), 922-7119, FAX: 92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가원

학생생활상담 공고

1. 34월 적성검사 실시 안내

- (서울캠퍼스)
- 일시: 3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3월 30일(목) 오후 3시
3월 7일(금) 오후 2시
4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 2층)
- (용인캠퍼스)
- 일시: 3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
3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4월 10일(월) 오후 2시 30분
4월 18일(화) 오후 3시
 - 장소: 용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 2층 219호)
- *적성검사는 학 1학년 30명이 소집된다.
- 이런 시험결과 시간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2. MBTI Workshop 인정

- 일시: 3월 29일(수) 오후 4시 ~ 6시 (18)
- 신청장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 2층, 전화 961-4164
- *1인 신청하여 합니다.
- 단, 단위로 신청하여(동아리나 과별) 집단으로 해석을 받으려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진로/사생활 프로그램

- 자신의 개성, 성격, 능력, 흥미, 재능 등을 검토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
- 기간: 4월 12일(수), 19일(목) 오후 3:30 ~ 5:00
(총 4회, 중간과거진 제외)
- 첫모임: 4월 12일(수) 3시 30분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글을 받습니다

지역 : 의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장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press@hanmail.net) / 「의대학보」를 읽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분이시라면 바라는 점을 예견하여 논으로 비변해 주십시오.

출판은 HUF(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99년 10월 10일

외대학보

LG컨설팅 기사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난 주 LG컨설팅 기사는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특히, 지역학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사가 잘못되었다.

요약본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공청회 시 슬라이드에서 지역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지역학이 그다지 힘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몇 학점을 지역학을 듣는다 해서 실제 기업에서 지역학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기본으로 갖추고 좀더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원 이상의 석사급 이상 인력이냐 현직인들 중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발맞춰 볼 때 어학과 지역학으로 나누는 학제개편은 궁극적으로 사회수요에 전혀 맞추지 못하고 학생들의 졸업시 취업에 어려움을 미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윤형(상경·경제 4)

지면에 섬세함이 부족

의대학보에 오자가 눈에 띄게 많다. 날짜 고치는 '일월' 단어조차 오자가...

그리고 학생회 간부들의 직책과 이름도 제대로 넣어주길 바란다.

좀 더 지면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류경수(경상·경제 4)

좀더 읽기 쉬운 기사...

10면 '독도 관련 철학' 글은 읽기 쉽지는 않았다. 전문 필자가 쓰는 글도 좀더 간략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을 위한 취재활동이었으면 더 좋았다.

(윤민배(의대·독도문제 연구소))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중앙위의 입장

하루 빨리 총학생회 건설해야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위원회(단과대 학생회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총학생회 선거투표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작년 선거가 중박투표가 발생해 선거가 무산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전체 학생회 일원의 반성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운영위원들은 단과대 학생회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총학생회의 위상과 권한을 3월 총학생회 개설회 때까지 대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반대, 본관신축 반대, 비리교수 제안을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함에 있어 외대 전체 학우들의 총의를 모아내고 그것으로 힘있게 학교측과 상대해가려는 구심의 부재로 인한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였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대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총학생회를 힘있게 건설해야 할 책임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회칙들이 많이 미흡하고 개정해야 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회칙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대표들과 대표자들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학대회를 열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칙 제3장 제3조 2항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의 재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

건을 학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에 의하여 이 안건을 학대운영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학대운영위를 통해 각과 학생회장들이 선거세칙을 검토하고 해산해서, 24명의 대표자들중에서 22표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3월 선거를 투쟁하고 민주적으로 총학생회를 세워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작년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대에 신적에 있는 등록금 문제와 비리교수에 대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대표자들의 결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3월의 후보단이 2000년도 외대 학생회를 총괄하는 총학생회를 구성하고자 하여 입후보하여 지금을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34대 총학생회를 민주적, 정당적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학생회는 당면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기에 1부는 재선거 논의의 정으로, 2.부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비리교수 복귀 음모 저지를 위한 투쟁의 지리로 상정합니다.

이윤형(상경·경제 4, 서양어대 학생회장)

임시학생총회를 준비해온 투쟁본부의 입장

임시학생총회 통해 '혁신' 이뤄야

작년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본질은 외대 학생회의 현황에 있다.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 학생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관점이 갈수록 무뎌져가는 학생회 일원들, 그속에서 강요와 부정을 통해 학생들을 투표소로 밀어넣지 않았던 학생회를 건설할 수 없는 현실, 그 결과 진리탐구와 민주주의의 정당이라는 대학사회의

서 빠른 정치과정에서나 일어날 법한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더욱 커졌다.

하기에 여국의 투쟁본부는 이번 34대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시학생총회를 단과대에 재단하였다. 임시학생총회에서 지난 부정선거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세우고, 임시학생총회를 학생들이 주도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운동의 낮은 모습을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34대 총학생회를 민주적, 정당적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학생회는 당면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기에 1부는 재선거 논의의 정으로, 2.부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비리교수 복귀 음모 저지를 위한 투쟁의 지리로 상정합니다.

하지만 단과들은 이같은 우리의 의지를 묵한 채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단과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학대운영위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진행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

월 1일 소집공고와 나고 이를 후인 3월 3일 열린 학대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가 얼마나 수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백면양보에서 학대운영위에서의 결정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대의 1/10 이상인 800명이 임시학생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황에서 단과들은 책임있게 임시학생총회를 받아들이려 한다. 회칙상 최고의 사결정기구인 학생총회인만큼 그 하위의 의사결정기구인 학대운영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도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요구가 있다면 상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단과들은 임시학생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화제에 보강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학원 운영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지난 18일(목) 1차 임시학생총회가 성사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임시학생총회의 성사를 통해 민주적, 정당적으로 34대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대대적 노력을 것이다. 이것은 한 번 보고 안되면 그만두는 싸움이 아니라 줄을 건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자 의지이다.

임시학생총회를 통해 낡은 학생회의 혁신의 뜻을 물려주고 학생들의 힘으로 민주적, 정당적으로 34대 총학생회를 건설해야 한다.

(여국의 투쟁본부)



경기도 총학생회가 등록금 투쟁 중 총장실 점거기간에 뇌물수수 비리문서를 발견했는데...

이 바다가 다 그렇지 《별소리》	나? 이제 임시비리까지 타지겠군! (이번에 범역비리 결린 분)	내 꿈은 갈부 《경기도 총장》
등잔 밑이 어둡다는 데...	《형광등》	뭐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닌데...
그 돈 내가 준 거 아	《그림자》	《공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대학문화 계승하자

00학번 새내기에게 산배로 대학만의 문화와 이기기가 많이 주저된다.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겪은 새내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6·9나 뱀대기 같은 게임은 만년지 말미안되는 선배에게 친해지는데 좋은 측면이 있는 대학인의 놀이문화라 생각하는데, 이 측면보다 게임에 익숙한 후배에게 술을 먹이는 측면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일지라도 후배가 꿈꿔온 대학생활에 대한 대화를 할게 나 누지 못해 아쉽다고 한다.

단편적인 예일지라도 후배가 꿈꿔온 대학생활에 대한 대화를 할게 나 누지 못해 아쉽다고 한다.

한편 대학문화는 그 자체의 존재이유가 대중문화와 다르다. 대중문화는 주제가 되는 대학생들의 세대에 민감하고 정서적이고 양상적이라는 특성을 여러가지로 담고 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사회의 진보와 민족의 발전, 사람의 소중함을 내용으로 한다. 여전히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그린 민중가요가 널리 불리우고, 민족문화를 계승한 동요들이 자라났고 있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에 뿐만 아니라, 잔디밭에서 술마시면서 선배배움터에 흥겨운 대화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모방한 계승적 말고 내용을 계승하자. 모방은 조종은 달라도 되더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한 내용면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김민석(서양·영어 3)

새천년 새천년 함께하는 국민은행

2000

e천년, e뱅킹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 넘어
세계 금융을 하나로 연결할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한 미래의
은행 시스템, 국민은행이 만들어 갈
미래의 금융세상입니다.

새천년의 새로운 금융세상
국민은행이 열어 갑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www.kookminbank.com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각종 계좌관리, 계좌이체, 대출금 지급, 대부금의 은행업무 등 은행에 가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강한, 더 좋은 은행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m

대학문화 새활용

‘영상을 제작한 모질’

내가 만든 영상 세계

외국과 종합 연구센터 영상 문화실이 운영하는 ‘원맨다큐제작 과정’이 이번 학기부터 ‘영상문화제작반’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개설한 ‘원맨 다큐제작 과정’은 1·2기를 배출하고, Q세션 다큐멘터리대상에도 출품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남겼다. 영상문화실 조관연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다큐와 광고, 극 영화 등 영상 전반에 관심이 많다. 다큐는 다른 장르의 영상의 기본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화영 영상문화제작반 교수의 말을 덧붙인다.

언어와 그 지역문화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외대생들에게 다큐를 가르쳐 진로에 있어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이 다큐제작 과정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해 보는 것, 계획하여 원고를 쓰고 카메라를 들고 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이다”고 원맨다큐 1기생 윤용희(통학·마인어 4, 휴학)군은 말한다. 문군은 지난 해 해외입찰자들의 슬픔을 담은 ‘이리랑’을 제작하여 서울 다큐멘터리 영화제 후보작에 오르기도 하였다.

기술적인 스틸카메라의 원리와 구조부터 기획, 촬영, 편집까지 주 2회씩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은 앞으로 영상학부의 토양을 다져 줄 것 같아 조관연 지도교수는 전한다. 또한 영상문화실에서는 지난 2월에 15명 정도의 지역학 교강사들이 참여하여 영상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해외지역에 대한 지역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문화,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든 이 워크숍은 실제로 영상문화교과제 부족한 현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대 지역학의 창점과 영상과의 접목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공을 살려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하면 된다.’ 하는 것이 조관연교수의 바람이다. 실제로 지역학 교강사들의 워크숍수업으로 영상물을 통한 교육커리의 풍부해짐과 함께 학생들의 전문진로 교육에 있어 좋은 본보기로 학내에서 크게 자리매김해나갈 것 보인다.

윤용희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기간: 4월 4일~6월 30일(6주) 매주 화, 금(주 2회)

시간: 17:30~19:30

수강료: 30만원

정원: 20명

문의: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 영상문화실(0335-330-4949, 4959)



‘대학건물 내 흡연’ 규칙 진단과 대책

알지못하는 규칙 지켜질 수 없다



· 대학건물 내 금연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설문분석

‘대학 건물내 금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158명(서울 70명, 용인·88명)중 56.3%(89명)의 학생들이 건물 내 금연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지난 17일(금) 안배출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흡연자 56명 중 52.9%(35명)이 ‘건물 내 금연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건물 내 금연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흡연자 102명 중 52.9%(54명) 역시 ‘건물 내 금연’에 관한 규정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 금연 규정에 대해서는 흡연자 중 46.8%(26명)은 비 흡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는 이유로 찬성, 41%(23명)은 ‘흡연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흡연 할 권리가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12.5%(7명)의 학생들은 답에 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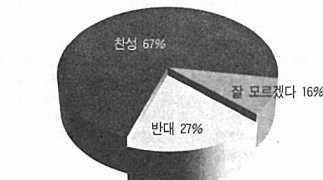
이에 비해, 비흡연자는 102명 중 86.2%(88명)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간접흡연의 폐해’ 등의 이유로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규칙이 ‘실효성이 없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이다’라는 이유로 무응답한 학생이 전체 비흡연학생 중 6.9%(7명)으로 나타나 ‘건물 내 금연’ 규칙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전체 비흡연학생 중 6.9%(7명)은 ‘흡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 내 금연’ 규칙을 반대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을 살펴보면, ‘흡연자들에게 흡연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건물 내 금연을 실시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흡연 구역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답한 학생들도 보였다.



·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고찰과 대안

“유지원생도 아니고 금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피운다. 대학 생이니가 우리가 주장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지켜주면 좋겠다” 서울배출터 도서관 관리인 정일복씨는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사회의 금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건물 내에서도 금연규칙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학교 건물 내 금연 규칙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듯이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총 158명의 학생 중 56.3%(89명)의 학생들이 이 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흡연구역이 모호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이다. 이와 관련, 이덕호(법·법학 3)군은 “각 건물의 쓰레기통이 위치하고 있는 복도 끝을 흡연구역으로 설정해서, 복도의 흡연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복도가 연기로 가득차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군은 “흡연 구역에 흡연을 위한 재떨이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담배를 버리기도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다”라며 흡연구역 시설의 정비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종적인 흡연선 운동이 대안이 될지한다. 고정석(상경·경제 4, 휴학)군은 “비흡연자들의 권리는 물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편의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학교 “도서관은 흡연실이 6층 한곳밖에 없다”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흡연규칙을 만든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예로, 서울사람들의 경우 유리로 된 흡연실이 마련돼 있어, 학생들에게 흡연실의 존재를 알리고 다른 장소에서의 금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원치 않는 건강의 악화를 가지고 올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 규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또 흡연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흡연 할 수 있도록 인종간 흡연선이 필요하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생활시평

뒤집자, 새내기 행사

대학에서 3월의 주제는 역시 새내기다. 각 학교마다 새내기를 ‘모시기’ 위한 새내기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 등의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한 수많은 행사들 속에서 한가지 미진한 점은 행사가 ‘보여주기식’에서 그친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한 문화는 공동체 문화다.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건강한 생활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 의미의 대동놀이는 노래와, 춤, 풍물이 중심을 이루고 둘러싸고 있어 모두가 주체가 되는 놀이다.

그 속에서 마을의 질서, 소망, 문화를 채득해 공동체적 연결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놀이방식인 것이다. 대동놀이의 특징으로는 일단, 수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단절과 협동을 중시한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을 넘어 노래와 춤을 통해 하나가 되는 대동적 일체감을 형성하는가 하면 폐를 같이 집단 사이에 거꾸를 하는 동안 상하적으로 연대감을 획득하기도 한다.

한때 대학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커나갔고, 그 발표의 형태로 ‘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문화가 단지 보는 것,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크게 잘못 된 일이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태도, 대학인으로서의 현실인식과 과정 등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늘 하는 ‘새내기 맞이 행사’에서 좀 더 기발한 생각을 해 보자. 장난 놀이도 보고 입구로 계획, 한달, 1년 계획도 세워 보자. 문화적조란 절대 수동적이지 않다. 주체적인 활동 속에서 불협화음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처음 배움터를 누비는 새내기들의 손을 잡고 같이 준비하고 이루어진 수 있는 행사를 내면 연 기대해 본다.

문화부장

생각비품이 전산실에서 채팅하지 마시라

두리번~두리번~속재할 곳을 찾아서 전산실을 서성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컴퓨터 앞에서 잠담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소? 안그리고 부족한 컴퓨터, 노트북 더 유용하게 쓸 친구들이 앞에 있을거예요. 자요도 찾아와야 하고, 레포트 작성도 해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산실에서 채팅은 알기요 해요!

Nownuri

파란 포만 모여라!

www.nownuri.net

www.nownuri.net

가 입 특 전

1. 나우누리가 한달동안 무료!

3월중 나우누리 상담창구에서 가입하면, 나우누리 기본이용료가 한달동안 무료!

2. 2000년 1학기는 한달 5000원이면 끝!

3월중 나우누리 상담창구에서 가입하면, 2000년 6월 30일까지 기본 이용료가 50% 할인된 5000원에 나우누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또 30% 할인!

3월중 나우누리 상담창구에서 가입하면, 2000년 6월 30일까지는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30% 할인된 가격에 나우누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또 또 사은품까지!

3월중 나우누리 상담창구에서 가입하면, 2000년 6월 30일까지는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30% 할인된 가격에 나우누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금은 나우누리 단점할인제와 특약 이벤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인터넷나우누리
가입문의: 02-565-5552

영화평·'반칙왕'을 보고

반칙왕! 재현된 노스탤지아의 세계

영화의 첫 장면

나른하고 단조로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면 클로즈업된 흑백의 TV 화면이 보인다. 낭만적인 피아노 사운드 속에서 재현되는 레슬링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흑백(과거)의 세계에서 칼라(현실)로 물러난다. 흑백(과거)의 세계에서는 열차의 끝이 피아노 선율을 하며 물러오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초라하게 서있는 대호의 모습이 지나가는 차창사이로 간간히 보인다.

이처럼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된 대립은 영화의 전체적 구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상징적인 영화적 재현이다. 여기서 낭만-이미지와 현실-이미지는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충만의 동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영화를 바라보게 앞서 관객은 계속 마주치게 될 두 개의 세계(이미지)와 낯설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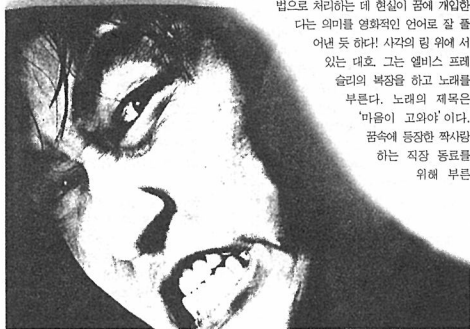
대호는 무능한 은행원이다. 거의 매일 자각을 하고 한 개의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사원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오자 찔들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받기 일수이다.

그러나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헤드락'에 걸린다. 직장 상사의 팔에 목을 조인 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재빨리 상황. 이것은 조직 사회의 폭력과 억압으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소시민의 현실을 은유화한 장면인 것이다. 곧 '헤드락'의 상황은 대호에게 있어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호는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한다. 대호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탈출구와 조우하게 된다. 그 탈출구는 흑백의 브라콘관에 존 재했던 기억 지평의 공간 즉 노스탤지아의 공간인 레슬링 체육관이다.

노스탤지아의 세계로

대호가 레슬링 체육관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



이 영화에서는 유명한 인간의 순간으로 극화된다.

영화의 초반부 회색빛 보도블록 위를 걷고 있는 대호의 다리가 트래킹 셔트로 보여진다. 먼지가 휘날리는 뒷골목. 그것은 회색빛의 도시적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그 길을 무력 무척 걸고 있는 대호가 다리가 초반의 원과 동일한 구도로 트래킹 된다. 동일한 구도내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의 병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화적 설정은 다른 세계(낭만-이미지로서의 레슬링의 공간)로의 장이(轉移) 장에 이루어지는 징후인 듯 하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먼지와 함께 신문 등이 흩날리고 비엔 전등이 따스하게 골목을 비추는 그곳은 차가운 도시의 정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 20년쯤 뒤로 거슬러 올라간 노스탤지아의 세계이다.

하지만 그곳은 꿈의 세계가 아니다. 정글과 같은 도시의 난관에서 소외된 그리고 어떤 인간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현실 안에 존재하는 낭만의 세계인 것이다. 현실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자신의 본능 혹은 추억을 발견하고자 대호는 레슬링의 세계로의 진입을 꿈꾼다.

사각의 링

현실 안에서 사각의 링 안에서는 언제나 규제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사각의 링 안에서 벌어지는 반칙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것도 게임의 룰 속에서는 준수의 사항이지만 현실 속에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해방과 쾌감의 원천이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각의 링은 현실에서 이루어진 힘든 억압된 욕망이 재현되는 비현실의 세계이다.

영화 '반칙왕' 안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의 세계에 노스탤지아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영화로 돌아가 설명해보자. 대호가 레슬링 체육관을 다녀온 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꿈을 꾸다. 영화는 꿈의 세계로의 진입을 조형적 알지(백지)의 네모(사각의 링)의 편집 기법으로 처리하는 데 현실이 꿈에 개입한다는 의의를 영화적인 언어로 잘 풀어낸 듯 하다! 사각의 링 위에서 서 있는 대호.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제목은 '마음에 고의야'이다.

꿈속에 등장한 찰사감하는 직장 동료들 위해 부른

반어적으로 쓰인 노래하며 엘비스의 복장 등 이러한 것은 대호가 꿈꾸는 이상향이 기억 지평에 물려버린 노스탤지아의 세계임을 실감하게 보여준다.

사각의 진혼곡

영화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은 '사각의 진혼곡'이다. 진혼의 대상은 링 위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두 레슬러가 아니다. 그것은 '사각의 링' 그 자체이다. 링 위의 세계, 대호의 무의식적 욕망이 재현되는 환타즘의 공간이자 과거가 현재화된 노스탤지아의 세계의 죽음에 대한 진혼의 노래인 것이다.

유비와의 결투를 앞둔 대호는 비장의 각오로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를 쓴다. 왜 대호는 그것을 썼을까? 이 마스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는 스승인 장관장이 선수 시절에 썼던 것으로 대호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박혀 있는 과거의 이미지이다. 대호는 그러한 이미지(과거 혹은 낭만적인 의미에서)에 자신(현실의 이미지)을 숨기고 링의 세계에 뛰어들다.

하지만 현실의 게임 즉 마스크가 뜯기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환타즘의 공간이었던 링 위의 세계가 물러가고 뜯기는 현실의 공간으로 회환한다. 이때부터 유비와의 대호의 결투는 레슬링이 아닌 처절한 주먹다짐이 되는 것이다. 아! 사각의 링아여.

영화의 라스트

유비와의 결투로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는 대호는 깨어나자 자신에게 '헤드락'의 수모를 준 부지점장을 달려간다. 부지점장과 맞서게 된 자리에서 대호가 주먹을 불끈 쥐고 결투를 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 긴장된 순간에 대호는 특유의 말투로 '어, 눈 아냐'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여전히 대호가 노스탤지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임을 영화는 잘 보여준다.

다시 주먹을 쥐고 부지점장을 향해 돌진... 그러나 대호는 눈에 미끄러지고 만다. 대호가 미끄러지는 프리즈 프레임(freeze frame)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러한 얼어붙은 현실은 바로 사회의 구조화된 억압과 폭력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마는 우리 소시민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꿈꾼다. 우리의 순수하고 소망이 담겨 있는 노스탤지아의 세계가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 그날을...

양정호

〈서양·영어 3〉



안들린다... 거짓된 팀 주인에게 잡혀 있어있는 소리. 개밥그릇 뒤에는 소리 말할 수 없다. 인사때문에 이물당했던 그때. 주한 인근에 의해 상수를 당했던 그때. 돌린다... 4년동안의 투쟁 속에 지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물러 노래 부르는 소리... 말할 수 있다. 상수를 초월하는 비리 제단 축의 취에 투쟁으로 맞설 수 있다고... -지난 17일(금) 예바더의 밤 콘서트에서-

최현정 기자 skydawn21@hanmail.net

서평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이제 우리 '장기수'가 된다

이 책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

한 10년간의 수감생활을 정리한 원고를 국내 출판사에서 출판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출판사도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요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일본에서 출판하기 위해 일본행 민족애출판의 잡지에 실려 원고를 숨겨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공청에서 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범과 사상범에 대한 탄압과 고문 그리고 열악한 생활시설과 생활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로 고문과 구타로 전향서를 쓰게하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반드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가 겪은 고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조국의 을 끝은 역사정립과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연합을 결성하기위해 혈혈 단신으로 평안을 받던것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일본에서의 노동자생활, 평양체류 7개월간의 상해에 비평록, 귀국 후 본격적인 동지들과의 통일운동, 구속 후 잔인한 수사 및 취조과정 그리고 수감생활 11년 강요 생활, 출옥후 비참한 가족의 삶 그리고 일본에서 서의 수기 출판시도의 실패로 다시 재수감되는 장면 등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책은 오늘의 젊은 청년학생에게 및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이 책은 인생을 너무 쉽게 살라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민족공동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청년시절 타성에 젖어 무사안일주의를 탐닉하고 조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 지난 50년간의 냉전문화 속에서 평화 통일문제의 논의조차 급기시하고 단합해온 과거의 정권 담당자들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

〈저자는 최선용/도솔향 두리 미디어/2000년 1월/연락처 362-3721〉

이장희

〈국제법 교수〉

대학보, 군대간다

외대학보는 독자가 원하는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여기로 신청하세요.

서울)961-4151 외대신문사
961-4152 외대대학보학생기자실
용인) 0335-330-4112
oedaepress@hanmail.net

민족자주언론
오디화보